

음성 가이드 : 운젠의 종교적 역사

자 그럼, 지옥 구역을 벗어나 운젠 역사의 종교적인 측면을 다시 살펴보도록 할까요?

만묘지는 701년에 교기(行基)라는 승려가 운젠에 창건했습니다. 교기는 나라 시대(710년~794년)에 오사카 교토 남쪽에 있는 나라가 수도가 되기 이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. 불교는 일본에 전래된 지 1세기 반만에 이미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었는데, 그 배경에는 사찰이나 불상 등 불교 건축물을 세운 것으로 잘 알려진 교기의 공헌이 있었습니다.

사찰에 대한 역사서에 따르면 교기는 천황에게 만묘지를 건립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합니다. 전성기에는 3,000명이나 되는 승려가 온천산(운젠산/현재의 운젠)에서 살며,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공부했습니다. 16세기에 기독교가 전래될 때까지 운젠은 불교 신앙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.